

농어촌공사 경산청도지사, 찾아가는 서비스

- 맞춤형 과원규모화사업 방문홍보 -

한국농어촌공사 경산·청도지사(지사장 권익현)는 8월 21일, 경산시 용성면 부제리 과수농가를 방문하여 과원규모화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.

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사업에는 다양한 맞춤 지원 사업들이 있으며, 과원규모화사업은 과수를 중심으로 한 전업·은퇴·청년 농업인 등에 맞춘 과수원 규모화사업이다. 과원규모화사업을 통하여 과원매매시(공부상 지목이 전·답·과수원이며 실제이용현황이 과수원인 농지) 3.3㎡당 66,000원까지, 연리 2%, 11~30년 분할상환 지원하고 과원임대시 임차기간은 5~10년, 임대료(지역표준 임차료 상한 내에서 협의)는 일시불로 임대자에게 지급한다.

경산·청도지사는 2025년 농지은행사업의 일환으로 과원규모화사업에 6.3억 원(매매 590백만 원, 임대차 39백만원)을 확보, 선착순 신청농가에 과수원 규모화를 지원한다.

[찾아가는, 과원규모화사업 설명회]

(경산시) 용성면 부제리 산87(3,174㎡)



과수농가 대상 과원규모화사업 설명

